

# 나무와 우리민족의 삶(1)

임 경 빈 / 원광대학교 교수

『本稿는 금년 1월 29일 전남 光陽에 서 가졌던 韓國未來學會세미나때 발표한 요지를 潤色한 것이다.』

## 1. 나무와 풀

木本과 草本의 구별은 어렵지 않으나 극단한 경우를 내 세워서 꼬치꼬치 따지면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줄기나 가지속에 維管束間形成層을 만들어 해마다 肥大生長을 해 나가는것은 木本으로 말하고 束內形成層만 가져서 經年에 따른 肥大生長을 하지 않는 것을 草本으로 말하면 일단 타당한 理解를 誘出할 것이나 아리송한 경우도 있다.

尹善道作에 다음과 같은 시구가 있다.

나무도 아닌것이 풀도 아닌것이  
곧기는 뉘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저렇게 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 하노라.

非草亦非木 歲寒獨也青 하는 것이다. 어느경우나 例外를 가지지 않는 原論의 定義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태현박사의 한국식물도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3,063종의 식물이 설명되어 있고 그중 草本이 2,050種으로서 약 67%, 木本이 1,013種으로 약 33%를 占有하고 있

다. 報告에 의하면 北韓에도 이쯤의 草本이 있는것으로 되어 있으나 分類單位의 취급에 따라 種類數에는 차이가 날 것이다. 그리고 또 外國에서 도입된 나무를 어느범위까지 받아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곳에서는 주로 樹木만을 다루기로 한다. 나무를 보는 視角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物質的인 面-  
    -生物學的인(分類, 生態, 生理, 유전등)  
    -非生物的인(林産物의 利用 등)  
-非物質的인 面→文化的인 것, 無形的인 公益的機能

## 2. 樹木崇拜

樹木崇拜에 대하여서는 프레이저(J. G. Frazer)가 세계적으로 採録한 많은 例示가 있고 佐藤敬二의 설명이 있어서 이곳에 더할 것이 없을 정도이다. 즉 樹木崇拜는 自然崇拜의 하나로서 어느民族에 있어서나 過去, 現在를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소위 老巨樹 또는 名木이란 것이 各地에 있는데 사람들은 이러한 나무에 대해서 神秘觀, 崇拜觀이란 것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超人間的인 神靈은 人間의 禍福을 다스릴 수 있는 것으로 믿어 畏敬하

고 무릎을 꿇어 祈願을 올리는데 이르렀다. 數百年 또는 千年의 長壽를 한 巨木에 큰 威力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서낭나무(城隍木), 서낭당숲(城隍藪)은 그 두드러진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서낭당나무로 선정하는데 除外되어야 할 樹種은 없었고 심지어는 미국原産인 아카시아가 서낭당나무로 된 경우가 있다. 그런데 外國에 있어서는 가령 인도, 이집트 등에서는 옛적의 종교로서 無花果를 神聖樹로 정하였고 아라비아사람들은 올리브, 그리고 사이프레스를 神聖한 것으로 보았으며 佛敎에 있어서는 인도보리수나무, 沙羅樹(노각나무), 無憂樹 등을 尊崇했다.

우리나라의 樹木崇拜는 멀리 檀君說話에 까지 소급시킬 수 있을 것 같다. 神들의 通行路였던 太白山의 神檀樹는 神市로서 거룩하게 神聖視되었지 않았을까? 開國說話에 檀木이 먼저 등장하고 있다.

神木, 堂山木, 城隍木에 대한 崇拜는 洞民의 精神의 結束을 또 平和를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勸善懲惡의 風俗을 싹트게 하는 原動力이 되었다고 믿어진다.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에 山川등 自然을 대상으로 하는 祭祀의 記錄이 각각 7개처 및 21개처로 나타나고 있다.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숨은 것도 있을것을 생각하면 삼국시대에 이미 山岳(樹林을 포함한) 崇拜는 흔히 수행된 행사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樹木崇拜가 우리民族의 情感에 미친 영향은 컸을 것으로 믿어진다.

### 3. 나무의 神祕

나무의 신비성에 관련된 기왕부터의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1) 農耕의 豐凶의 豫告

우리나라各地(특히 南部)에 이팝나무의 老木이 많은데 거의 한결같이 開花狀態로 農事의 豐凶을 점치고 있고 仁川 신형동의 회화나무도 그러하다. 전남 장흥 부용면의 푸조나무는 잎이 피는 모습으로 그해 농경의 成否를 짐작하고 있다.

#### (2) 나무속에 蠃이 있다.

강원도 영월 그리고 원주군 문막면 또 괴산 읍내리의 은행나무줄기안에는 큰뱀 또는 이무기가 살고 있다고 믿는다. 경북 상주 화서면의 반송에도 뱀이 살며 날이 갠으면 소리를 낸다고 한다.

#### (3) 插木傳說

插木 또는 插杖傳說이 있는데 외국에도 이러한 경우는 있다. 송광사의 곱향나무, 경기도 용문사의 은행나무, 경북 浮石寺의 골담초 등이 예에 해당한다.

#### (4) 位階가 주어진 나무

中國에도 이러한 예가 있다. 속리산 正二品松, 용문사 은행나무는 이에 해당한다.

#### (5) 우는나무

경기도 용문사 충남 금산 杏亭, 강화도 西面의 은행나무, 尚州 화서면의 반송은 일이 있을때 마다 소리를 내어 운다고 한다. 외국에서도 나무가 危機에 처할때 큰소리를 내어 운다는 기록이 있다.

#### (6) 人格이 부여된 나무

位階가 주어진 나무는 그나무를 人格化한 例로 볼 수 있다. 慶北 醴泉의 石松靈은 不動産을 소유하고 税金을 바치며 住民登錄番號가 부여되어 있는 등 人格이 주어진 例이다.

#### (7) 나무에 막걸리주기

앞에서 말한 石松靈과 淸道 雲門寺의 처진소나무에 年例的으로 막걸리를 주고 있다. 그理由는 한 잔 드시라는 勸酒가 바로

“  
**우리나라 사람은 나무중에서  
 소나무를 제일 좋아하는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소나무목재 이용의 용이성과  
 소나무리는 미적 운치가 우리민  
 족의 심성배양에 깊게 연계되어  
 있는 까닭이 아닐까**  
 ”

그나무의 人間性意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科學的으로는 그나무에 特殊養料을 供給한다는 事實에 이어지고 있는것을 생각하면 經驗科學의 理致가 그뒤에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한 일이라고 믿어진다.

사람은 神秘性을 좋아하는 그것에 마음을 쏘려보려는 心性이 있고 이것은 逆으로 人間은 自然앞에 無力한 存在라는 것을 自認하는 것이다. 이러한 自認을 그들人間生存에 有利한 影響을 미친것으로 풀이된다. 三國史記 奈解尼師今3年條에 始祖廟의 臥柳(누어있는 버드나무)가 저절로 일어섰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도 나무의 神秘性을 되도록 시인해 보려는 努力같은 것이 엿보인다. 科學的으로도 臥柳가 自立할 수 있는것인데 다만 그 時間的速度가 문제이다. 이·三國史記의 경우는 버드나무가 벌떡 일어난것이 아니겠는가. 人間은 神秘를 좋아한다.

#### 4. 소나무論

##### (1) 소나무 優先思潮

우리民族은 소나무를 좋아했던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도 그러

한 말이 있지만 고려 현종 4년(서기 1031년) 條에 『임금이 가르치시기를 “松栢百木長也”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송금사목(松禁事目)의 첫머리에도 『나라에는 큰 정책이 있으니 소나무에 관한 정책은 그중의 하나이다』(有國大政 松居其一)라고 있는데 나무에 있어서는 소나무를 첫째로 했다. 本草綱目에도 松栢爲百木之長이라 있다.

##### (2) 소나무의 象徵

- ① 白砂青松 : 우리나라 風致의 要約이다.
- ② 節操 : 성삼문의 절의가, 사명대사의 青松辭
- ③ 美麗 : 가장 아름다운 나무
- ④ 長壽 : 十長生의 하나
- ⑤ 實用性 : 丁茶山의 詩에 黃腸一樹直千錢
- ⑥ 禪의 境地 : 山空松子落 또는 松下問童子

##### (3) 朝鮮時代의 소나무

- ① 松田 : 만기요람에 유명한 松田 393個處가 기록되어 있다. 松田이란 표현은 소나무의 價値가 높아서 하는 말이고 文獻에 많이 나온다.
- ② 松政 : 松政이란 표현이 많은데 가령 朝鮮朝 정조 4년조에 『上曰 松政之解弛 莫如近日 究其弊源 識由造船……』이라 있다. 소나무政策의 뜻으로 그 比重이 짐작된다.
- ③ 禁山 : 入山을 禁止시켜 養護토록한 山을 말한다.
- ④ 封山 : 주로 生長한 큰 소나무를 禁養해서 國家需要에 供하고저한 山(畝)으로 英祖·正祖때 많이 나오는 用語이다. 朝鮮朝 前期에는 禁山이란 用語가 後期에 있어서는 封山이란 말이 쓰여졌다.
- ⑤ 香炭山 : 陵의 祭亨에 需要에 바칠 木을 굽게 지정한 山(森林)
- ⑥ 禁松契 : 소나무를 보호하고자 만들어

진 동민의 썬

(4) 소나무의 生態

① 소나무의 집단：人間干涉下에 유지되는 被害集團으로 人類文明(自然 파괴를 뜻함)의 同伴者라는 理解가 濃厚하다.

② 他感作用(Allelopathy)：소나무林分아래에는 他樹種이 잘 자랄수 없다는 것이다. 松栢之下其草不殖이라해서 옛적부터 그러한 事實이 인정되고 있었는것 같다.

③ 海松과의 分棲(habitat segregation), 두드러진 현상의 하나로 그 間에는 유전자 移入이 관찰되고 있다.

④ 幹型：大體로 山岳에서는 直幹性이고 平地에서는 曲幹이 많다. 干涉集團에서는 曲幹으로 된다.

(5) 소나무文化圈

人爲的으로 활엽수림이 파괴되면서 農耕文化가 發展됨에 따라 또 온돌이 多量의 原料를 消費하고 소나무목재 利用의 容易性和 廣汎性이 더욱 소나무숲의 擴張을 돕는 結果를 초래해서 인간과 소나무의 生存上協助가 크게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소나무라는 美的韻致가 우리民族의 心性培養에 濃度 높게 連繫되었다는 事實로서 소나무文化圈이 理解되지 않을까. 그리고 松木百木之長이란 千年의 오랜 心醉를 아울러 저작할때 그러하다.

이에 대하여 다른民族에는 密着되어온 樹種에 따라 文化圈이 形成되었으니 다음과 같은것을 들 수 있다.

① 照葉樹林文化圈：일본, 中國南部, 우리나라 南海岸(?)

② 자작나무文化圈：北歐諸國, 러시아北部, 우리나라 以北의 高原高山地帶

③ 참나무文化圈：중부유럽

④ 유칼리文化圈：호주

⑤ 무화과 및 올리브文化圈：지중해연안 및 中東地域

일본의 照葉樹林文化란 東部亞細亞의 熱帶降雨林에서 출발한 根栽農耕文化에 대하여 그북쪽의 照葉樹林地帶(가시나무류, 잣나무류, 동백나무로 代表되는 지대)에서는 이에 對應하는 野生의 芋類(芋類) 농경文化가 대두되었다. 이어서 조엽수림 文化는 火田에 잡곡류 밭벼를 栽培하는 山居的 文化로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 그뒤 논벼 재배로 이어지자 照葉樹林文化는 끝장을 보게 되었다.

照葉樹林은 여름이 덥고 비가 많이 오는 곳에 발달하고 여름이 더우나 비가 적고 오히려 찬 겨울에 비가 내리는 地中海연안 같은 곳에는 硬葉樹林(Durisilvae)이 발달한다.

(6) 森林의 存在의 效果

① 고려 成宗 7年(988), 나무를 끊지말고 野生動物을 보호하라고 했다. 禁止伐木, 無麋無卵, 勿傷萌幼…… 禁伐木無犯盛德, 이때에는 禁伐이 倫理的善行에 이어진 느낌이다.

② 태조 4年(1395) 山林茂密 然後地氣濕潤이라해서 森林의 水利作用의 效果를 천명하고 있다.

③ 정조 5년(1781) 『버드나무를 심으면 다섯가지 이익이 있다. 국토의 경계를 바로잡아 유지하고(蔽藏疆) 적의군사를 방어하고(禦馳突), 제방의 결괴(防齧潰)를 막고 땀감으로 쓰이고(資薪樁), 좋지못한 바람을 막는것(障風氣)이다. 森林의 間接效用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이 다된 느낌이다. 참고로 詩經에 薪之樁之란 대목이 있는데 薪은 땀감을 樁는 火를 피우는것을 말하는데 薪樁을 뭉쳐서 땀감으로 해 두었다.

(다음호에 계속)